

PRESENTED TO

Sportsjobalio

PRESENTED ON

Jul 31, 2024

AS PROPOSED BY

조선평

juliacho0604@naver.com

010-6639-8319

An overview of the game

분데스리가 · 2024. 2. 11.



3

-

0



레버쿠젠

바이에른

요시프 스타니시치 18'

알렉스 그리말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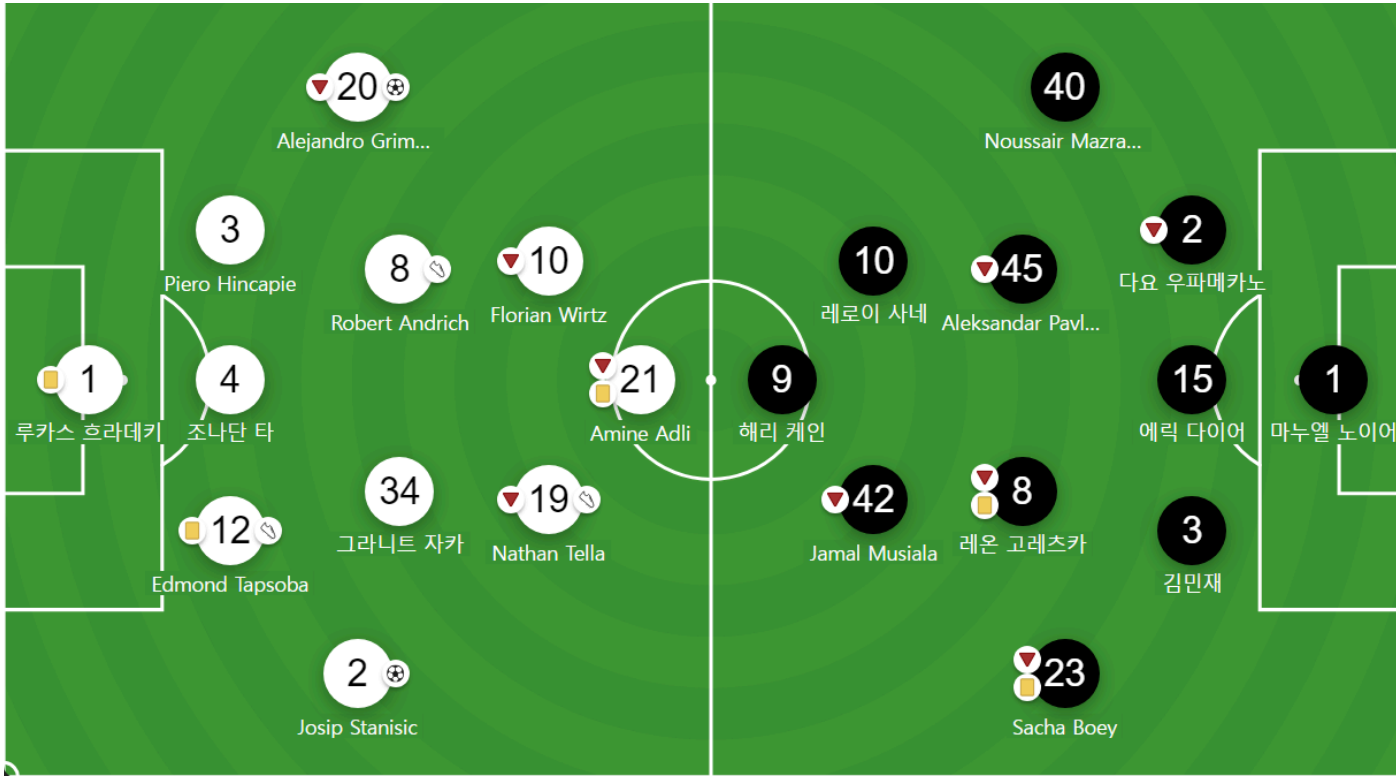
제레미 프림퐁 90+5'



이 경기는 2024년 2월 11일에 BayArena에서 진행된 경기이다. 경기 결과는 3:0으로 레버쿠젠이 깔끔한 승리를 이뤄냈다. 전반 18분에 요시프 스타니시치가 선제골을 넣고 50분에 알렉스 그리말도가 추가골을, 그리고 추가시간 5분에 제레미 프림퐁이 썩기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종료되었다.

이 경기 전까지 뮌헨은 선두 레버쿠젠을 승점 2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었다. 승리했다면 순위를 뒤집고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레퍼쿠젠의 완승으로 인해 뮌헨은 16승2무3패, 승점 50으로 2위를 유지했고 레버쿠젠은 17승4무, 승점 55로 뮌헨과의 격차를 5점으로 벌리며 무패를 유지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Line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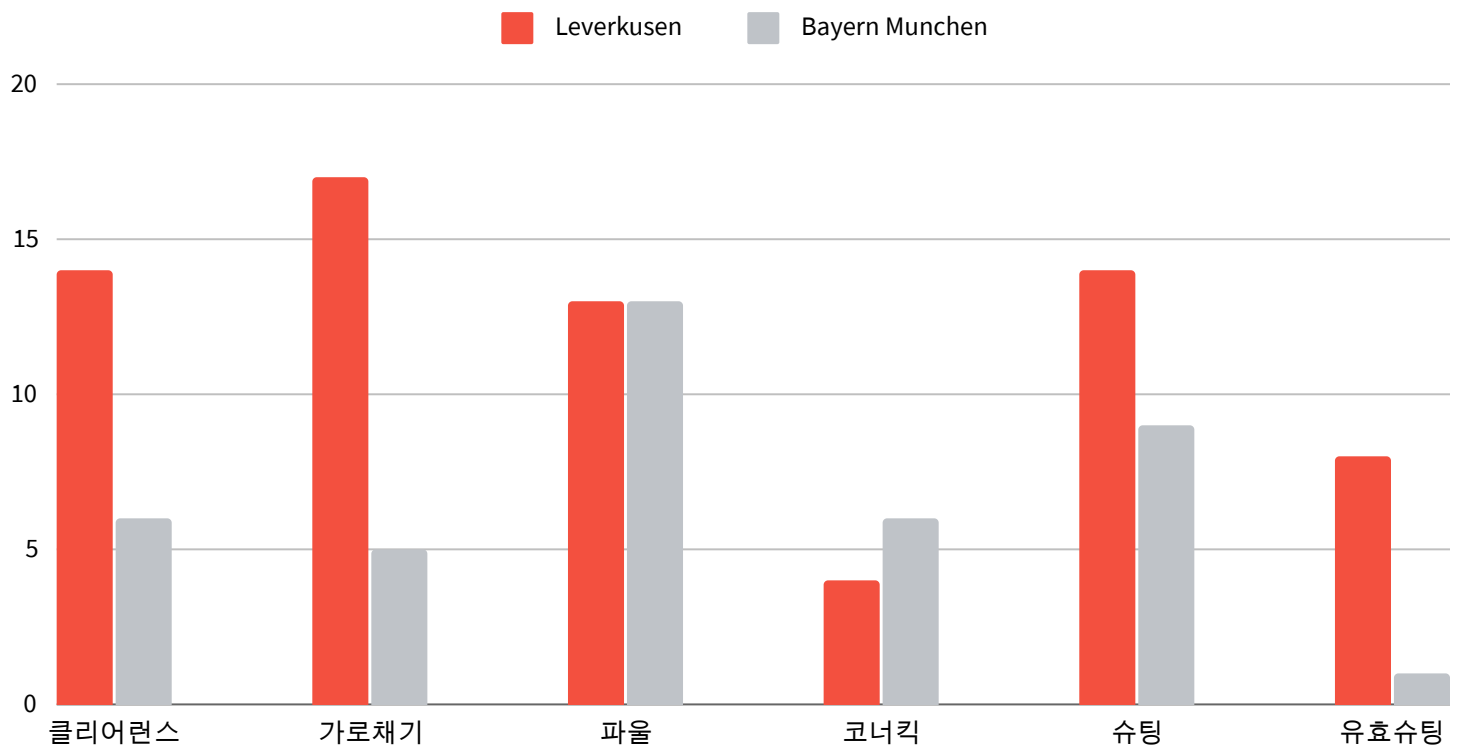


해당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레버쿠젠과 뮌헨 모두 3-4-2-1 포메이션을 선택했다.

레버쿠젠은 루카시 흐라데츠키가 골문을 지켰고 에드몽 탑소바, 요나탄 타, 피에로 인카피에가 백3를 이뤘다. 또한 요시프 스타니시치, 그라니트 자카, 로베르트 안드리히, 알렉스 그리말도가 중원을 구성했다. 네이션 텔러, 플로리안 비르츠가 2선에 위치했고, 아민 아들이 원톱으로 출격했다.

뮌헨은 마누엘 노이어가 변함없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김민재가 에릭 다이어,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후방을 책임졌다. 신입생 사샤 보이와 레온 고레츠키,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고,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가 2선에서 원톱 해리 케인을 지원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와 다이어가 처음 선발 명단에 함께 포함되면서 호흡을 맞추게 됐다.

Statistics



	Leverkusen	Munchen
기대득점 (xG)	1.148	0.42
패스 횟수	419	653
패스 성공률	82%	88%
점유율	39%	61%

[데이터를 통한 분석]

1. 공격 효율성

- **슈팅과 유효 슈팅:** 레버쿠젠은 총 14회의 슈팅 중 8회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으며, 이는 57%의 높은 유효 슈팅 비율이다. 반면, 뮌헨은 9회 중 1회만 유효 슈팅으로 기록하여 11%의 낮은 유효 슈팅 비율을 보였다.
 - **분석:** 레버쿠젠은 높은 정확도로 슈팅을 성공시켜 득점으로 연결했다. 이는 효과적인 공격 전개와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다.

2. 점유율과 패스 플레이

- **점유율:** 뮌헨이 61%로 경기 주도권을 가졌지만, 레버쿠젠은 39%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 **패스 횟수와 성공률:** 뮌헨은 653회의 패스를 시도하며 88%의 성공률을 보였고, 레버쿠젠은 419회의 패스 중 82%를 성공시켰다.
 - **분석:** 레버쿠젠은 상대적으로 적은 패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과 수비 전환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특히, 패스 성공률이 82%로 비교적 높아, 압박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유지했다. 반면, 뮌헨은 뒤로 돌리는 패스가 많아 패스 횟수와 성공률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3. 기대득점 (xG)

- **레버쿠젠의 기대득점 1.148:** 실제 득점(3골)과 비교하면, 레버쿠젠은 기대득점보다 훨씬 높은 득점을 기록하였다.
- **뮌헨의 기대득점 0.42:** 실제 득점(0골)과 비교하여, 뮌헨은 기대득점조차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 **분석:** 레버쿠젠은 득점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대득점보다 높은 실질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뮌헨은 득점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으며,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하였다.

* 레버쿠젠의 성공 요인 *

1. **효과적인 역습:** 점유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역습과 높은 슈팅 정확도로 뮌헨의 수비를 공략하였다.
2. **중앙 밀집 전략:** 중앙에서의 밀집된 수비와 압박으로 뮌헨의 공격을 차단하고,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3. **공격 효율성:** 유효 슈팅의 높은 비율과 기대득점 이상의 득점으로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주었다.
4. **견고한 수비:** 뮌헨의 유효 슈팅을 1회로 제한하며,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Deploying an attack

빈공간 활용

뮌헨이 433의 형태로 수비가 펼쳐면서 중앙쪽에 수비가 몰렸을 때, 레버쿠젠의 입장에서는 왼쪽 백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따라서 왼발잡이인 잉카피에 (LCB)가 전방쪽에 수월하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김민재의 뒷공간 쪽으로 높게 패스를 해주게 되었고 여기서 텔라가 바로 발리슛을 가져가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간격

간격을 좁게 하고 그 좁은 간격을 서로 계속 유지했다. 밀집된 중앙에서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한 중앙에서 볼을 탈취하면, 상대 골문으로 직선적인 경로를 통해 빠르게 역습을 전개할 수 있었다.

포지션에 구애 받지 않는 움직임

레버쿠젠의 모든 선수들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움직여줬다. 예를 들어, 왼쪽 윙백 그리말도가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지 않고 공격 찬스일 때, 오히려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해당 움직임으로 인해 슈팅 찬스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수비진들에게 혼란을 주고 수비라인이 자리를 잡고 버티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왼쪽 센터백인 잉카피에(LCB)가 풀백처럼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는 등 자유로운 움직임을 많이 펼쳤고 이 과정에서 두번 째 득점을 하였다.

3백을 활용한 상대 수비 무너뜨림

그리말도가 올라올 때, 잉카피에가 같이 올라옴으로써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뮌헨의 마즈라위를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그리말도가 중앙지역으로 패스 하면서 본인은 안쪽 지역으로 뛰어들어 슈팅장면과 득점을 만들어냈다.

Defensive transitions

압박

레버쿠젠은 4-4-2 가 아닌 4-3-3 수비를 하면서 중앙을 꽉 잡는 수비형태를 펼쳤다.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중앙에서 볼을 뺏기면 바로 압박을 하여 공격전개를 지연시켰다. 특히 뮌헨의 김민재가 중앙으로 올라와서 볼을 커트했을 때 바로 압박을 통해 전진패스를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간격

레버쿠젠은 공격전개와 마찬가지로 좁은 간격으로 중앙 밀집 수비를 하였다. 뮌헨은 좌우 사이드 공격을 활용을 잘 못하였는데 이가 레버쿠젠에게 있어서는 좋은 수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뮌헨은 오른쪽 풀백 선수를 왼쪽에, 왼쪽 풀백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써 중앙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자주 시도하였는데 중앙 밀집 수비를 하는 레버쿠젠은 이를 잘 차단할 수 있었다.